

(2015.9.19. 시행) 경찰공무원(순경) 3차 기출문제 [국 어]

[해 설 : 안한섭 교수]

1. 국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어는 ‘아름다운 고향’과 같이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특징이 있다.
- ② 일반적으로 국어의 단모음은 ‘ㅣ, ㅑ, ㅕ, ㅗ, ㅓ, ㅛ, ㅜ, ㅡ, ㅝ, ㅟ’ 열 개가 인정되고 있다.
- ③ 국어는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작은집, 벗어나다’ 등과 같은 파생어와 ‘군소리, 날고기’ 등과 같은 합성어가 많다.
- ④ 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높임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크게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해설: ‘작은집, 벗어나다’ 등은 합성어이고 ‘군소리, 날고기’ 등은 파생어이다. 정답 ③

2. (가)~(다)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주원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나)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 (다) 영희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 ① (가)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 ‘주원’이 생략되어 있다.
- ② (나)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성실한’도 안긴문장이다.
- ③ (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부사어 구실을 하고 있다.
- ④ 위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문장 속에 안긴문장이다.

해설: (가) 주원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밑줄 친 부분은 ‘땀이 이마에 흐르다’이기 때문에 생략된 문장 선분은 ‘주원’이 아니라 ‘땀’이다. 정답 ①

3. 문장의 의미가 가장 명확한 것은?

- ①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 ②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을 두 개씩 주셨다.
- ③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 ④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해설 : ②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을 두 개씩 주셨다. → ‘두 개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의성이 사라져서 올바른 문장이다. 정답 ②

오답 풀이:

- ①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 의존 명사의 중의성이다. 걸음걸이가 이상할 수도 있고, 걸을 수 없는데 걷는다는 사실 자체(상황)가 이상할 수도 있다.
- ③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 한 잔 이상은 한 잔을 포함하는 말이므로 의미가 불명확하다.
- ④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 ‘웃으면서’의 주체가 불명확하다. ‘웃으면서’의 주체가 ‘ 판매원’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다.

오답 풀이

- ① 쌍점은 앞말과 뒷말을 각각 띄어 써야 한다. →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 ② ‘3 / 4 분기’에서 빗금의 띄어쓰기는 옳게 사용된 것이다. → ‘3/4’로 붙여 써야 한다.
- ④ ‘2015. 9. 19’에서 연월일을 숫자로만 쓸 때에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2015. 9. 19.’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9.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6 시가 안되서 일어났다.
- ② 어디를 가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다.
- ③ 지금부터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④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행한다.

해설 : 정답 ② ‘어디를 가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다.’는 맞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안되서 → 안 돼서
- ③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있으시겠습니다.
- ④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행한다. → 이 배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행한다.

10. (가)~(태)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 (나) 어서 먹어라.
- (다) 영선이가 철이에게 꽃을 주었어요.
- (태)“참 재미있었다.”라고 말할까?

- ① (가)의 ‘떠나가고 있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한 동작상 표현이다.
- ② (나)는 명령문으로 주로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와 같은 어휘들이 서술어로 사용된다.
- ③ (다)는 세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으로 ‘철이에게’는 보어이다.
- ④ (태)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참 재미있었다라고 말할까?’가 된다.

해설: ‘고 있네.’는 현재 진행형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정답 ①

오답 풀이

- ② (나)는 명령문으로 주로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와 같은 어휘들이 서술어로 사용된다. → 형용사는 명령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다.
- ③ (다)는 세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으로 ‘철이에게’는 보어이다. → 세 자리 서술어인 것은 맞지만 ‘철이에게’는 보어가 아니고 부사어이다.
- ④ (태)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참 재미있었다라고 말할까?’가 된다. → ‘-라고’는 직접 인용문에 쓰이고 ‘-고’는 간접 인용문에 쓰이므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참 재미있었다고 말할까?’가 된다.

11. 괄호에 들어갈 한자어로 옳은 것은?

梨花에 月白하고 銀漢이三更인 제
 一枝春心を () | 야 아라마는
 多情도 병인 냥하여 잠 못 드리 호노라

-이조년, 「多情歌」-

- ① 子規 ② 細雨 ③ 陰雨 ④ 錦繡

해설: 시조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배꽃에 달빛이 하얗게 비치고 은하수가 삼경을 가리킬 때
 배꽃 가지에 서린 봄의 정서를 (자규)가 알겠나마는
 다정한 것도 병인 듯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노라.
 따라서 정답은 ①

12. 한시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洞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錄波

- ① 心心相印 ② 教外別傳
 ③ 麥秀之嘆 ④ 戀戀不忘

해설: 한시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혈장제초색다(雨歇長堤草色多): 비가 갠 긴 언덕에 풀빛은 푸르건만
 송군남포동비가(送君南浦動悲歌): 임을 보내는 남포에선 슬픈 노래 올리네.
 대동강수하시진(大洞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그 어느 때에 다 마를 것인가?
 별루연연첨록파(別淚年年添錄波): 이별의 눈물을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여지네.
 따라서 남포에서 임을 그리워 눈물을 흘리므로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는 연연불망(戀戀不忘)이 가장 알맞다. 정답 ④

오답 풀이

- ① 심심상인(心心相印):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
- ② 교외별전(教外別傳): 부처의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 이심전심과 같은 말.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13.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로 옳은 것은?

요즘 청년들은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취직 준비를 한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그 청년들 중에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온갖 어려움을 겪은 아주 야무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면접관들은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에도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회사에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 ㉠ 콧배기 → 코빼기
- ㉡ 암담 → 암탉

16. (가)~(라)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우리는 언어를 수단으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산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매일매일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는데, 실제 언어 사용에서 항상 동일한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 심지어 아직 어린아이일지라도 문장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익히고 연습하여 발화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를 자원으로 하여 문장의 틀에 적용하거나 혹은 틀을 조금씩 변형하여 새로운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 어린 시절에 흔히 부르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등으로 이어지는 노래를 기억할 것이다. 이 노래는 꼬리 따기 노래의 일종으로, 동일한 문장 구조이지만 각기 다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이 끝없이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나) 언어의 기호가 다른 기호와 차이점이 있다면 ‘의미’인 내용이 ‘말소리’라는 형식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 기호에서 내용과 형식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에서 ‘사과’라는 언어 형식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 사과라는 의미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먹는 과일 사과를 두고 한국 사람들은 ‘사과’라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Apple(애플)’이라고 하며, 독일 사람들은 ‘Apfel(애플)’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苹果(핑궈)’라고 한다. 먹는 사과를 나타내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이와 같이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 관련이 없다.

(다) 한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재미로 서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거나, 세상의 사물 이름을 달리 붙여 말해 보는 놀이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서로 이름을 달리 부르면서 깔깔대며 웃거나, 사물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놀이를 통해 서로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나 내기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어로 하는 놀이였을 뿐이다. 놀이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원래대로 이름을 부르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조선 시대에 간행된 책을 보면, 우선 표기법이 현대와 달라서 읽기에 생소하고 단어의 뜻도 많이 다르며, 문장의 구성 방식도 현대와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반도라는 공간 안에서 시간차를 두고 한국어라는 언어가 서서히 변화해 왔음을 보여 준다. 과거를 향해 시간을 되돌릴수록 지금과의 시간적 거리만큼 언어의 변화 정도도 커지게 마련이다. ‘△’은 옛날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소리도 남지 않고, 표기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현재 ‘짚지’ 등에 쓰이는 ‘지’는 김치를 뜻하는 순우리말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과정을 거친 끝에 ‘디히>지히>지’가 된 것이다.

- ① (가) 언어의 사회성
- ② (나) 언어의 자의성
- ③ (다) 언어의 역사성
- ④ (라) 언어의 창조성

해설: 두 번째 문장에서 ‘언어 기호에서 내용과 형식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 해설

- ① (가) 마지막에 ‘동일한 문장 구조이지만 각기 다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이 끝없이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했으므로 언어의 창조성(개방성)에 해당한다.
- ③ (다) 첫 번째 문장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 ④ (라) 끝부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과정을 거친 끝에 ‘디히>지히>지’가 된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뉘홀시고 뉘망高고臺티 외로올샤 穴혈뉘망峰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千천萬만 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 (나) 江강湖호애 病병이 겁퍼 竹뉘林림의 누엇더니,
關關東東 八팔百백 리니에 方방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 (다) 나도 즘을 썬여 바다홀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人인들 엇디 알리.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萬落낙의 아니 비췌 디 업다.
- (라) 千천年년 老노龍룡이 구빅구빅 서려 이서,
晝晝夜야의 홀녀 내여 滄창海海히에 니어시니,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雨우를 디련는다.
陰陰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마) 峰봉마다 밋쳐 잇고 窟마다 서린 기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귀운 호터 내야 人인傑걸을 玆玆고자.
- (바) 鳴명沙사길 니근 朶이 醉취仙仙을 빗기 시려,
바다홀 것티 두고 海海棠棠花화로 드러가니,
白白鷗구야 느디 마라 네 버던 줄 엇디 아논.
- (사) 天텡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亭의 울은말이,
바다 밋근 하늘이니 하늘 밋근 므서신고.
긱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래관디,
블거니 썬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정철, 「關東別曲」 중에서-

17. (가)~(사)를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나) - (마) - (바) - (사) - (라) - (가) - (다)
- ② (나) - (마) - (라) - (사) - (바) - (가) - (다)
- ③ (나) - (가) - (사) - (라) - (마) - (바) - (다)
- ④ (나) - (가) - (마) - (라) - (바) - (사) - (다)

해설 : 관동별곡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죽림(창평)에 누웠다가 임금의 성은으로 인해 강원도로

- ③ (ㄷ)는 고향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 준다.
- ④ (ㄹ)에서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을 넘어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으로 태어나는 사랑의 의미는 행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 준다.

해설: ① (ㄱ)의 1연과 2연은 문장 구조의 대구는 맞지만 시어의 대구는 없다. 대구란 문장 구조 등이 비슷하게 나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 ①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1, 2연의 내용을 의미하는 대응 표현이다.
- ② ㉡은 ‘인격 또는 학식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는 의미이다.
- ③ ㉢은 ‘함초롬’의 방언이다.
- ④ ㉣은 ‘애뜻하게 그리운’을 나타낸다.

해설: ㉣나타(懶惰)는 ‘나태와 같은 뜻으로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